

요한 3 서 묵상 1
(10/9/2020, 금)

찬양: 370(455)(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3 서 1:1-4

말씀에 대한 이해

요한 3 서에 대한 이해: 요한 3 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저자가 한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 3 서이고, 나머지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디모데전후와 디도서 등도 수신자가 한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편지들은 개인과 함께 공동체 전체에 보내는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 서는 요한 2 서처럼 서신으로서의 분명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3 서에서도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3 서는 요한 2 서와 문체, 어휘, 구조, 그리고 분위기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고 기록 시기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서 요한이 보낸 교사들을 거부하였고,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사랑하는 자여.” 사도요한은 1 절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에게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1 절)라고 말하면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사도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은 자신을 통해 회심하고 성도가 되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가이오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 절 -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번영**’ 혹은 ‘**행복**’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영혼의 잘됨을 먼저 언급하며 간구합니다. 아울러 요한은 범사도 그와 같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육체의 강건함도 간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의 기준이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잘됨 같이**”라는 말에서 “**같이**”라는 말의 원어는 ‘**카도스**’인데, 이것은 ‘**동일하게**’입니다. 요한은 영혼과 범사가 동일하게 잘되고 육체도 동일하게 강건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을 단순히 ‘**동일하게**’, 혹은 ‘**똑같이**’라는 의미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이 우선이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것을 먼저 바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과 육체의 건강과 성공과 성취 이전에 우리 영혼이 바로 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영적 잘됨**’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영과 육의 치우침 없는 잘됨을 강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지나치

게 무시하고 폄하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 모두를 창조하셨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3 절 -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가이오 때문에 심히 기뻐한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그를 아는 성도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이오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동역자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학자들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았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요한 3 서에서 요한이 책망한 디오드레베처럼 요한이 보낸 교사들을 홀대하고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잘 대접한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음을 칭찬하면서 디오드레베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기뻐하노라”**라는 말 외에도 4 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내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 열매 맺듯이 결신하고 교회를 섬기며 선교에도 헌신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여겼습니다. 아울러 이제 나이가 많아 대다수의 성도들보다 나이가 많았을 요한은 그의 나이로 인해서도 성도들이 자녀들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노사도가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돈, 명예, 권력 등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 이상 기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사도로서 가진 사명감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은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2 절 -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영혼이 잘되는 은혜,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오늘도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개인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3. 세계 선교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